

# 사찰 부동산 '등기 정비' 좋은 기회

## 조계종, 내년 특별조치법 활용 부동산 소유권 정비

### 양도·상속 입증할 3명의 보증서 있으면 소유권 획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조계종이 부동산 자산 보전 및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이 같은 방침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보고됐다.

특조법은 부동산을 양도 및 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증인 3인

의 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그 자는 확인서를 갖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사찰소유 토지 중 미등기된 토지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대법원 판례상 사찰이 보증인의 보증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지 않

은 이상 다시 찾아올 방법이 없어 불교재산 유실의 원인이 됐다. 특조법은 1984년과 94년에도 두 차례 실시됐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사찰명의로 등기된 토지 관련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보하고, 미등기 부동산 등은 일제시대 토지사적자료나 각 사찰의 총독부 신고 자료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또 종단에서 파악한 사

찰소유부동산의 주소를 각 시·군·구·읍·면으로 분류해, 각 행정구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부동산 지번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일치되는 지번이 나타나는 경우 당해 사찰주지 명의로 이의신청기간(2개월)에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이 외에도 사찰이 실제 경내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조법을 이용해 사찰명의로 이전 등기할 예정이다.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사찰부동산 실태파악과 정비사업은 해당사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사립학교법 개정' 불교계 입장은?

### '큰변화 없을것' 예상...건학이념 훼손 우려도

논란을 거듭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의 통과되면서 불교계는 종립학교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 가운데 1/4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게 된다. 또 잦은 사학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 1인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연이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보충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하지만 불교계 종립학교들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건학이념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교육부의 시행령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립법인의 임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나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법인의 경우 동종 종교를 가진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기 때문이다. 15일 김진표 부총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교육부의 이러한 뜻을 전하고 협조를 구했다. 반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13일

지관 스님을 예방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관련,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 재단은 9개 출자 사찰의 파송 승려 9인과 동창회 등 외부추천 3인 단원씩 총장 1인이 이상을 구성돼 있어 이미 개방형 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단 운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동국대의 경우 대학평의회 추천 이사 영입으로 스님들 간의 대립구도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7대종단 대표 모임인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지관 스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대통령 이 거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로 16일 결의했다.

조용수 기자

## '삼보륜' 넣은 가사 의장등록

### "조계종 지정 가사전 사용"

조계종이 삼보륜을 넣은 가사를 제작해 지난 10월 7일 특례종에 의장등록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가사가 통일될 전망이다.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총무부장 자승 스님은 "본말사에서 가사불사시의 장엄한 가사전 사용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승 스님 또 "향후 종단이 지정한 가사전을 사용해야 한다"며 "가사전은 총무원에서 신청해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사는 일정 기간 검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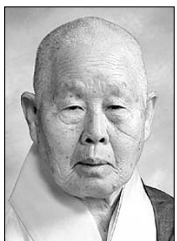
한편 비구(비구니) 법계에 따른 가사 조수는 △대중사(명사) 25조 △중사(명사) 21조 △종정(현덕) 19조 △

대덕(혜덕) 15조 △종정(정덕) 9조 △견덕(계덕) 7조 등으로 조정됐다.

남동우 기자

### 보문종 5대 종정에 해일 스님 추대

보문종 중앙종회는 12월 13일 보문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보문종 제5대 종정에 해일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해일 스님은 1934년 전주 정혜사에서 득도, 64년 목담 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현재 보문사에 주석하고 있는 해일 스님은 보문종 7~10대 총무원장, 원로회의의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김상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불자들이 차담을 나누는 정경을 찍은 덕조 스님의 금상수상작.

### 제1회 템플스테이 사진공모전 덕조 스님 당선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사업팀 주최 '제1회 템플스테이 사진 공모전' 금상에 김상사 주지 덕조 스님이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교)은 12월 9일 은상에 영평사 사무장 이동익씨, 동상에 백양사 김문정 과장, 입선에 갈곶사 주지 적운 스님,

원주 구룡사 법철 스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심의분회를 각각 선정하고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공모전에는 15개 단체 70여명이 응모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사진의 구도와 예술성 등이 심사기준이었다. 이은비 기자

### '팀제'로 직제 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팀제'로 직제가 개편됐다.

12월 15일 열린 총무원회의에서 의결된 개편안은 기존 부서 국(局) 산하에 업무를 특성화한 팀제를 도입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무부는 총무행정팀 교무행정팀 행사기획팀 기록관운영팀 기념관운영본부로, 교육원은 교육행정팀 연수팀 불학연구팀으로, 포교원은 포교행정팀 포교사업팀 신도팀 포교연구팀으로 나뉘는 등 총 27개 팀으로 중앙종무기관이 구성된다.

남동우 기자

### 불교지도자 전진대회 개최 본말사 신도 연수 확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 차원에서 실시했던 '본말사 신도인원 연수교육'이 종단 차원으로 확대된다.

24개 교구본사로 실시되는 '불교지도자 및 신도인원 전진대회'이하 전진대회'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해당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신도회 임원, 지역 내 광역 및 기초 지역신도회 임원, 포교단체 임원, 개별신도단체 임원, 본말사 일반 신도 등 500명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목표로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다.

전진대회는 종단이 주최하며 해당 교구본사·중앙신도회·포교원이 주관하는 형태로 개최되며 총무원장스님 법문, 포교원장스님 강연, 중앙신도회장 축사, 지역불교 인사 소개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전진대회를 통해 체제된 본말사 신도인원에 활력을 주고, 미소진된 말사 신도회 구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각 교구본사를 비롯한 말사의 포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 홈피 새단장...사찰정보 가득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찾아가고 싶은 사찰에 대한 정보와 주변여행지까지 한번에 알고 싶을 때 사이트 접속 한번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003년부터 전통사찰 DB를 구축해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팀이 기존의 전통사찰종합관광정보 홈페이지(www.korea-temple.net)를 새단장해 12월 15일 개통했다. 그동안 흔재돼 있던 200

여개 전통사찰 관련정보를 △한국의 사찰 △불교문화관광 △커뮤니티 총 3개 섹션으로 분류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것.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을 강화해 사찰 이름 검색으로 해당사찰에 대한 관련정보, 찾아가는 길, 주변관광지 정보, 지도검색서비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670여개의 전통사찰에 관련된 각종 설화, 문화재의 사진과 동영상, 텍스트 등 풍부한 콘텐츠를 갖췄다. 이은비 기자

## 지금 미국에선 '무종교'인 늘고있다

미국인 중 무종교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기관인 갤럽이 12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 3%에 불과하던 미국인 중 무종교인 비율은 2005년 10%까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990년~2001년 무종교인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LA타임즈의 최근 보도와

무종교인 숫자가 1990년 1400만에서 2001년 2900만으로 증가했다는 ARIS(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의 발표 등과 궤도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비율도 1952년 75%에서 2005년 55%로 떨어졌다. 강유신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 2006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 대원불교대학 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이전

**모집과정**

- 입문과정 (서울·부산) : 불교입문과정 주,야간반 각00명 [주1회출석,6개월과정]
- 대학과정 (서울·부산) :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대학원 과정 : 서울, 부산 야간반 30명 [주2회 출석 / 야간 오후7시]
- 통신과정 : 00명 [대학원은 제외]

**강의시간** ●주간/오후2시부터 4시40분까지 ●야간/ 오후7시부터 9시40분까지

**지원자격**

- 입문과정 : 불교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 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대학원 과정만 해당)

**전원일정**

- 원서교부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원서접수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입문, 대학, 대학원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 (개별통보)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서울 / 2006년 2월 26일(일) 오전11시 3층 큰법당  
부산 / 2006년 3월 5일(일) 오전11시 2층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입문과정 1만원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 입문과정 1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학기당 : 대학과정 : 3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대학원과정 : 4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 수업료는 입학식전에 완납하셔야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가능)  
1학기에 한하여 학사이전기념으로 입학생 전원 20%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서울 :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 부산 :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706-1570,1 / 754-1613 / 773-9171
- 부산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2
-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의**

- 서울대원불교대학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 02)706-1570, 1571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773-9171 / 팩스 02)771-6796
- 부산대원불교대학 : 부산 금정구 장전1동 382-2  
☎ 051)583-7811 ~ 2 / 팩스 051)583-7700

대원불교신문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